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aiah 44:4)

2017 02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누가복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Isaiah 44:4)

충현의 만나

Contents

- 2 2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65 영어본문말씀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02 2017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8교구	2 17교구	3 9교구	4 전교인
5 전교인	6 전교인	7 18교구	8 14교구	9 7교구	10 1교구	11 전교인
12 전교인	13 전교인	14 10교구	15 2교구	16 11교구	17 3교구	18 전교인
19 전교인	20 전교인	21 12교구	22 4교구	23 13교구	24 5교구	25 전교인
26 전교인 제1차 세례식	27 전교인	28 15교구				

교회 주요 일정

2월 26일(주일)

제1차 세례식

2월, 개인 전도 계획

‘충현의 만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et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나’는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새벽기도회의 본문을 기준으로 ‘본문 해설’과 ‘묵상 질문’, ‘적용 질문’의 형태로 구성된 ‘충현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

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적확(的確)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기도 제 목

- 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 ③ 어떠한 음부의 권세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 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④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및 해당 교구 전도, 동역교회 전도 지원 사역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참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선교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⑥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⑦ 부임하신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부임의 과정과 절차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소서.
- ⑧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담임목사님이 청빙되도록 인도하소서.
- ⑨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 믿고 순종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묵상

오늘의 묵상

주요 성경 구절을 통해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누가복음 9:28~36 찬송가 204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난예고를 하신 이후 팔 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28~29절).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며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30~31절). '별세'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어법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출애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과는 달리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자 합니다. 초막은 율법의 수여자,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의 방문을 연장시키기 위한 임시 구조물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낸 것인데 자기의 말을 자기도 알지도 못했습니다(33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과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34~36절).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자신의 '별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과 세상 욕망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무지함과 세상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²⁸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²⁹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³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³¹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벌세하실 것을 말할새 ³²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³³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³⁴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³⁵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³⁶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 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 독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본문 누가복음 9:37~43(상) 찬송가 542장

» 본문 해설

변화산 사건 이후 산에서 내려 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을 큰 무리가 맞아 주었고 그 가운데 무리 중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37~38절). 그러면서 그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폭로하였습니다(40절).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께 부여 받아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기도 하면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눅 9:1~6).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막 9:29).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무능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41절). 결국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43절).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인줄 알고 오해하여 자신의 힘으로 고쳐보려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패역한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패역한 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 기도 제목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³⁷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 새 ³⁸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³⁹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⁴⁰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⁴¹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

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⁴²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⁴³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난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43(하)~45절). 하지만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누가 큰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46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변론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47~48절).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너희를 위하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49~56절). 수난예고 앞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 야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배타적이고 관용과 포용이 결여된 제자들의 모습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며 섬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배타심과 배척의 마음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 기도 제목

높아지려는 욕망과 배척의 마음 버리고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게 하옵소서.

⁴³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⁴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⁴⁵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⁴⁶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⁴⁷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⁴⁸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⁴⁹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⁵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⁵¹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⁵²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⁵³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 하는지라 ⁵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⁵⁵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⁵⁶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고난의 길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갈 때 만난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순간적이고 열광적으로 그러나 깊은 사려가 없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57~58절).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 제자의 어려움을 먼저 인식시켜주셨습니다. 즉 그가 따르는 대상인 예수는 집도 없는 방랑자이며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의 초청을 받았지만 집안일을 핑계로 따르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장례법에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죽은 직후 매장을 하고 매장을 한지 일 년 후 뼈만 남게 되면, 아들이 다시 와서 특별한 상자에 뼈를 넣어 무덤벽의 구멍에 다시 장사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 년씩이나 지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9~60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급진적 헌신을 요구되어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점에서는 첫 번째 사람과 비슷하지만 예수가 따름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뒤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61~62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삶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요청됩니다.

>>> 기도 제목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⁵⁷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⁵⁸ 예수께서 이르
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
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⁵⁹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
게 허락하옵소서 ⁶⁰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

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⁶¹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
소서 ⁶²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
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1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교의 방법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씩 보내셨습니다(1절). 두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2절). 추수는 강력한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이 적기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절). 그만큼 복음의 선포가 긴박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도시 전도자들은 대접해주는 집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5절). 그리고 칠십 인이 선포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입니다(9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을 회를 말씀하셨습니다(13~16절).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도시의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언급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 될 것에 대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회의 선포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전초 기지이며 가장 많은 말씀과 기적을 베풀 곳에서 회개가 없는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 보내신 이인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²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³ 갈지 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 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⁵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이다 하라 ⁶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⁷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⁸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⁹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

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¹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¹¹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¹²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¹³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¹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¹⁵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¹⁶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파송 받았던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함을 보고하였습니다(17절). 귀신들의 항복은 예수님의 이름이 악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 사탄은 최초에 하늘나라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욥 1:6, 2:1, 요 12:31, 계 12:7). 사탄은 떨어졌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19절).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은사나 권세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절).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감사하셨습니다(21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지도자들을 말하고 어린 아이들은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가리킵니다. 아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은 오직 아버지께 속해 있으며, 아들과 아들이 선택한 자만이 아버지께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22절).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보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3절).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이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함에 기쁨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늘 기뻐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¹⁷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¹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¹⁹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²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²¹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

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²²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²³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²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25절). 이에 대해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26~28절). 율법교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하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 했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준수의 기준은 '모든 일'이며 '항상'입니다(갈 3:10). 그렇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모든 일을 항상 다 지키신 분은 오직 한분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29절).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37절). 제사장도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인종적, 지역감정적 갈등과 미움이 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도와주었습니다.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지역적 갈등이 있어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²⁶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²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²⁸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²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³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³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³²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³³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³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³⁵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³⁶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³⁷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³⁸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38절). 마리아라 하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생에게 명하여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39~40절).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41~42절). 마리아가 '제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발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모습은 제자들이 랍비의 말씀을 듣는 모습과 같습니다. 당시 낮은 위치의 여성을 예수의 제자와 같은 위치로 묘사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초점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고 그로 인해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를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몇 가지나 한 가지라도 족하니 너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것에 충실히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좋은 편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발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게 하옵소서.

³⁸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³⁹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더니 ⁴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

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⁴¹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⁴²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본문 누가복음 11:1~13 찬송가 195장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1절). 당시 “선생(랍비)들마다 각기 제자들 집단에게 특정한 형태의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호칭, 당신 간구문, 우리 간구문의 세 부분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후에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5~13절). 끈질기게 ‘강청’ 해야 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5절). 한 사람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방 한 칸짜리 처소의 마루에서 자리를 깔고 잤습니다. 문에 달린 고리에 가로질러 있는 무거운 빗장을 빼는 것은 귀찮은 일이었으며, 소리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온 식구가 같이 눕기 때문에 밤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끈질기게 졸라 대는(체면 불구하고) 간청에 응답한다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응답하시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에도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¹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³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⁵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⁶ 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⁷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

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⁹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¹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¹¹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¹²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¹³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므로 귀신들렸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놀라는 사람, 더러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14~16절). 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17~18절). 또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은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일부러 비난하고 조롱한 것에 대해 너희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너희를 너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20절). 강한 자(사탄)가 그 집을 지키면 그의 소유(사탄의 소유)가 안전하게 되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의 진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계획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모든 축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는 심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21~23절). 믿음의 세계에는 중립 지대가 없습니다. 믿고 따를지 아니면 거부할지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야 합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¹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
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¹⁵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¹⁶ 또 더러는 예
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
니 ¹⁷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
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¹⁸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¹⁹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²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

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²¹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²²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²³ 나와 함께 하지 아
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²⁴ 더러
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
라 하고 ²⁵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
되었거늘 ²⁶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 다시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28절).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사용하셨습니다(29~32절). 그리고 33~36절의 등불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 즉 유일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므로 예수는 가장 분명한 표적인 것입니다. 한 날 인간에 불과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나라의 여왕도 수고하여 찾아오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누가는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32절). 이어서 등장하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30절)을 알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28절)이 영적 안목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표적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곧 눈이 성하면(34절)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곧 눈이 나쁘면(34절) 바로 보지 못하므로 내 삶이 어두워짐으로 자신의 삶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 기도 제목

이 세대에 주신 유일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²⁷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²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²⁹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³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³¹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³²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나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³³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³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³⁵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³⁶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37~44절에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어둠이 드러나지만 정작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9, 42~44절에서 형식만 취하는 잘못된 경건, 곧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이(38절) 바로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그들(39절)이 마음속 중심(41절, 그 안에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41절). 십자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2~52절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6가지 '화 있을진저' 책망이 기록됩니다. 그 화는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이런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53~54절). 그들은 모범적이지 못한 지도자들(46절)이었고, 오히려 영적인 결림돌이었습니다(52절). 그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살인행위를 인정해버렸고(47~48절) 이러한 죄의 값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됩니다(50~51절).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들 모두 하나님을 거역한 자였습니다(49절).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예수를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53~54절).

이러한 죄악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과 나라와 인류의 역사와 성경을 통해 '화 있을진저'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주께서 말씀 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순발력을 주셔서 '화'를 피하게 하옵소서.

³⁷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³⁸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³⁹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⁴⁰ 어리석은 자들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⁴¹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⁴²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⁴³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⁴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⁴⁵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⁴⁶ 이르시되 화 있

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⁴⁷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데도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⁴⁸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⁴⁹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혜가 일렸으니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⁵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⁵¹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⁵²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⁵³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⁵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 목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수만 명이 몰려든 자리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말씀의 빛 앞에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외식이 모두 드러났듯이 제자들도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2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3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호칭하면서,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4절). 오히려 사람을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다섯 마리 참새가 두 앳사리온이라는 보잘 것 없는 돈에 팔려가도 하나님은 그중 한 마리를 잊지 않습니다(6절). 우리의 머리털 하나 하나를 모두 세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7절).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8~12절이 실제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11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 인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8절).

과연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 기도 제목

오직 나의 앎과 일어서는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²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³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⁵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⁶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앓사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

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⁷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⁸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⁹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¹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¹¹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¹²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정말 몹쓸 사람입니다. 형과 유산을 나눈다는 것은 당시의(과거 우리나라와도 동일하게) 상속에 관한 율례를 무시한 요구였습니다. 신 21:17에는 장남이 다른 아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대한 이 사람의 부당한 요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처럼 이 사람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참 생명에 관해서는 전혀 갈급함이 없이 오직 물질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데 어찌나...”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모아두겠다 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오직 재물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평안하자. 먹고 쉬자. 즐거워하자...” 배부르고 등 따지면 최고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입니다(20절). 이 진리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20절).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집중하게 되는 “부요함”, 즉 “탐심”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15절).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만 부요하다면 그것은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참된 부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입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알고, 예수님께 더욱 부요한 참 신자되기를 원합니다.

¹³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¹⁴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¹⁵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¹⁶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¹⁷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¹⁸ 또 이

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¹⁹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²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²¹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23절).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새였던 까마귀까지도 먹이시는데 제자들을 '얼마나 더' 잘 보살피시겠는가?(24절). 들의 백합화,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만(27절), 백합화가 스스로 자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28절).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먹이십니다. 하물며 그의 백성은 '얼마나 더' 입히실까요? 우리는 땀값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32절). 그럼에도 의식주가 염려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28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31절). 의식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므로 우리는 그 길에서 의식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32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는 삶입니다(33절).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은 물질의 바른 사용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생의 풍요가 재산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요한 것, 즉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소서.

²²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²³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²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²⁵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²⁶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²⁷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²⁸ 오늘 있다가 내일 이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러

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²⁹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³⁰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³¹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³²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³³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³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언제 외출에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과 같이(35~40절),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40절). 베드로가 이 말씀의 대상을 궁금해 하자(41절) 예수님은 42~4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바로 청지기들,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청지기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된 청지기입니다(43~44절). 태만하며 종들을 때리고, 취리하며 먹고 마시며 술 취하는 자는 예기치 않은 때에 주인을 만나서 맞고 벌을 받게 됩니다(45~46절).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으면 더 중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47~48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청지기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먹이고,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청지기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청지기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보실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가 아니라, 맡겨준 백성을 제대로 먹이고 보살폈느냐입니다. 주님은 '양'이 아니라 '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크기와 분위기와 현대성을 선호하는 시대정신에 빠지지 않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의 교회와 나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기도 제목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주의 재림의 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³⁶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³⁶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³⁷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³⁸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³⁹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⁴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⁴¹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 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⁴²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

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⁴³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⁴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⁴⁵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⁴⁶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⁴⁷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⁴⁸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49~53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불지 않은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심판의 불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 곧 십자가에서 받을 심판과 고난입니다(50절). 이 불의 세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불세례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행 1:5). 이 불과 세례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도의 가정 속에서 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이 분쟁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에도 확대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열을 넘어 다시 거룩한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기상의 변화는 예측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마지막 심판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56절). 시대를 읽는 분별력,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무지가 아니라,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까요? 58절입니다. 법관과 재판장은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예수와 화해하지 않는)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의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그와 화해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청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요, 바른 판단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 기도 제목

심판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화해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⁴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⁴⁹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⁵¹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⁵²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⁵³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⁵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

리라 하니나 과연 그러하고 ⁵⁵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나 과연 그러하니라 ⁵⁶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⁵⁷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⁵⁸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⁵⁹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1~5절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두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회개의 절박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3, 5절). 허다한 무리로 무작정 예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돌이켜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6~9절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1~5절에서 강조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첫째는 참 회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둘째는 회개를 기다리는 주님의 인내가 얼마나 넉넉하고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햇수로 대략 9~10년째가 되는 때를 뜻합니다. 레위기 19:23에는 각종 과목을 심어서 첫 열매를 맺기까지 대략 7~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간 열매를 구했으니(7절), 결국은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9~10년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요, 오래참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공생애와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독한 역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금도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심판으로 끝날지, 구원으로 연결될지는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나무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어리석은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깊이 회개할 때입니다.

» 기도 제목

마지막 시대, 십자가 구원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²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³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⁵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

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⁶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⁷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⁸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⁹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는 등이 굽은 여인이 '질병의 영(원문직역)'에 들렸다고 하였습니다(11절). 귀신에 들린 경우,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등이 꼬부라진 것 외에는 전혀 귀신들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귀신들렸다고 보셨습니다. 본문에서도 18년 동안 질병의 영에 걸린 이 여인이 사탄이 18년간 속박했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11, 16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유하신 것을 본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분개합니다(14절). 그러자 예수님은 회당장 일행을 위선자라고 책망하면서 치유사건이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사탄이 18년간 결박했던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한 사건이라고 설명하십니다(16절). 이 표현은 당시에 여자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자리를 박탈당한 여인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13절), 온 무리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17절).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보이셨던 구원의 사건들, 베드로 장모, 용서받은 여인의 기름부음, 치료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김, 아이로의 딸, 혈루병 걸린 여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등 누가가 기록한 여인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임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기록한 주의 날에 모든 백성이 예수 십자가로 얻은 구원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¹¹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¹²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¹³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¹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¹⁵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

거늘 ¹⁶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¹⁷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¹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은 제자의 길을 소개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비록 사람들의 보기에는 초라하고 숨겨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을 품듯이, 때가 되면 밀가루 반죽을 뭉땅 변화시키듯이 온 세상에 그 능력을 보여주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전도여행 길목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셨고, 숫자가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줍니다(26절). 주님 앞에서 형제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덕분에 종말적인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배척당하여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25, 27~28절). 오히려 그들은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경하게 된다 하셨습니다(29절). 스스로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과 일치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좁은 문은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는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30절).

이방인을 위한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동시에 얼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재림 날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30절).

>>>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옵소서.

⁸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⁹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갓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¹⁰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¹¹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갓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¹²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¹³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¹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¹⁵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

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¹⁶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¹⁷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¹⁸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¹⁹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²⁰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있을 때 한 바리새인이 나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므로 여기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전언 내용을 들으신 주님은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헤롯을 통렬하게 경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헤롯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을 것임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한결음 한결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예루살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반복하여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며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의 탄식이십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려 쳤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간절한 초청과 호소를 거절한 채 의로운 피를 흘린 죄의 대가로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악한 자들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을 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소서.

³³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³²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³³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³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

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임탐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³⁵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각성과 각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의 초청에 응하셔서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는 한 사람의 수종병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수종병병자를 고칠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짓 영접을 했음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진솔하게 정직하며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보화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의 집에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수종병병자를 세워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에도 이렇듯 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종병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항상 진리는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상좌 택함을 보신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좌는 그 좌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앉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말석에 앉을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신을 인간의 형체로 낮추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의 제자 되는 우리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낮아지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²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³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⁵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⁶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⁷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⁸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⁹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¹⁰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¹¹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¹²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베틀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노라¹³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¹⁴ 그리하면 그들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23 내 잔치

목요일

본문 누가복음 14:15~24 찬송가 528장

》》 본문 해설

예수님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12). 예수님께서서는 부한 자보다 가난한 자들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대접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한 것을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천국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큰 잔치 혹은 혼인 잔치에 비유한 예가 많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습에서는 잔치를 계획하고서 바로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1차 통보를 하고 잔치 준비가 끝난 후 2차 통보를 하여 잔치에 초대합니다. 첫 번째 초청에 응하였던 사람들은 잔치 준비가 끝난 후 2차 초청에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거절하였습니다. 초청을 받았던 자들의 거부는 단순한 약속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인격 모독이었기에 주인은 진노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잔치 자리가 아직도 비자 주인은 종에게 길과 산으로 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초청에 기쁨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¹⁶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¹⁸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¹⁷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 이다 하매 ¹⁹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발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²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²¹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²²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²³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²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²⁵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 심지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혈연으로 인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소유도 또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식, 가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에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희생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마치 망대를 건축하다가 도중에 그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순교자 야고보와 스테반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을 기피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희생의 길을 자청하여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²⁵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²⁶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²⁷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²⁸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²⁹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바웃어 ³⁰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

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³¹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³²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³³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³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³⁵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께서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바리새인이 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가까이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비유를 들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잃은 양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목자는 나머지 아홉 아홉 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놓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잃었던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각고의 노력 끝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양이 지쳐 있거나 다리가 상해서 걷지 못할 때 목자들은 그 양을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각고의 노력 끝에 찾은 여인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기쁨을 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늘나라의 모든 즐거운 노래들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¹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²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³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⁵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⁶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⁷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⁸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⁹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¹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이야기로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부자 아버지 슬하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계를 동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분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고집을 안 아버지는 그에게 돌아갈 재산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곧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 종의 자리에까지 전락하였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 심한 굶주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회상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목격하고 아직도 상거가 면데도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아버지의 기뻐함과 아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가락지와 신을 주었습니다. 또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웃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4 다 없은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7 이에 스스로 돌아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 하나 1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1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14 이내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1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1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1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1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19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여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2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2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되 2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에게 그 청지기에 관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를 주인은 불려 조만간 그의 청지기직을 박탈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지기는 가정 총무로서 주인의 명을 받들어 제 반에 걸친 사무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성실해야 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것은 그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어도 부주의한 사람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묘안을 발견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자신의 미래를 대비해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웁지 않은 청지기가 해고 통보 이후에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은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들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결과 그 친구들은 빛의 아들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재물을 잘 사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길과 도움을 주면 그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라야 참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충성심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에 충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주인에 예수님임을 믿게 하여주옵소서.

¹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²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³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⁴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⁵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⁶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⁷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

라 하였는지라 ⁸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⁹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¹⁰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¹¹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¹²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¹³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 본문 해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실상은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 보기에 옳은 것 같았으나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우며 옳다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자기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지만 그것은 위선이었으며, 결국은 형식적인 인간의 법에 매여 외식으로 굳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행함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세례 요한으로 마쳐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 폐해졌다는 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곧이어 율법의 영원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하신 것은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구약의 말씀이 변치 않으리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에서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결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영원한 효용성에 대한 실례로 결혼과 이혼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 기도 제목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인 나를 발견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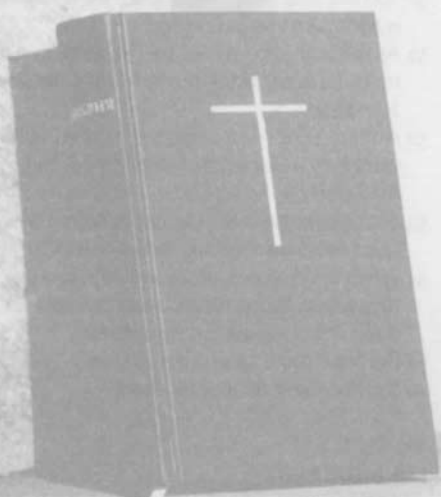
¹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들고 비웃거늘 ¹⁵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¹⁶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¹⁷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¹⁸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 묵상 노트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본문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3. 본문을 통해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 영어본문말씀



1월 1일 수요일

Luke 9:28~36

- 28 About eight days after Jesus said this, he took Peter, John and James with him and went up onto a mountain to pray.
29 As he was praying, the appearance of his face changed, and his clothes became as bright as a flash of lightning.
30 Two men, Moses and Elijah,
31 appeared in glorious splendor, talking with Jesus.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 which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32 Peter and his companions were very sleepy, but when they became fully awake, they saw his glory and the two men standing with him.
33 As the men were leaving Jesus, Peter said to him, "Master,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he was saying.)
34 While he was speaking,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they were afraid as they entered the cloud.
35 A voice came from the cloud,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36 When the voice had spoken, they found that Jesus was alone. The disciples kept this to themselves, and told no one at that time what they had seen.

1월 2일 목요일

Luke 9:37~43a

- 37 The next day, when they came down from the mountain, a large crowd met him.
38 A man in the crowd called out, "Teacher, I beg you to look at my son, for he is my only child.
39 A spirit seizes him and he suddenly screams; it throws him into convulsions so that he foams at the mouth. It scarcely ever leaves him and is destroying him.
40 I begged your disciples to drive it out, but they could not."
41 "O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and put up with you? Bring your son here."

42 Even while the boy was coming, the demon threw him to the ground in a convulsion. But Jesus rebuked the evil spirit, healed the boy and gave him back to his father.

43 And they were all amazed at the greatness of God.

1월 3일 금요일

Luke 9:43b~56

- 43 While everyone was marveling at all that Jesus did, he said to his disciples,
44 "Listen carefully to what I am about to tell you: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45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this meant. It was hidden from them, so that they did not grasp it, and they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46 An argument started among the disciples as to which of them would be the greatest.
47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beside him.
48 Then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welcomes the one who sent me.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he is the greatest."
49 "Mast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ried to stop him, because he is not one of us."
50 "Do not stop him," Jesus said, "for whoever is not against you is for you."
51 As the time approached for him to be taken up to heaven, Jesus resolutely set out for Jerusalem.
52 And he sent messengers on ahead, who went into a Samaritan village to get things ready for him;
53 but the people there did not welcome him, because he was heading for Jerusalem.
54 When the disciples James and John saw this, they asked, "Lord, do you want us to call fire down from heaven to destroy them?"
55 But Jesus turned and rebuked them,
56 and they went to another village.
1월 4일 토요일
Luke 9:57~62
57 As they were walking along the road, a man

said to him,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58 Jesus replied, "Foxes have holes and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59 He said to another man, "Follow me." But the man replied, "Lord,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60 Jesus said to him, "Let the dead bury their own dead, but you go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61 Still another said,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and say good-bye to my family."

62 Jesus replied, "No one who puts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s back is fit for service in the kingdom of God."

1월 5일 주일

Luke 10:1~16

1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two others and sent them two by two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2 He told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3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4 Do not take a purse or bag or sandals; and do not greet anyone on the road.

5 "When you enter a house,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

6 If a ma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7 Stay in that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they give you, for the worker deserves his wages. Do not move around from house to house.

8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welcomed, eat what is set before you.

9 Heal the sick who are there and tell them,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10 But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not welcomed, go into its streets and say,

11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stick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Yet be sure of this: The kingdom of God is near.'

12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13 "Woe to you, K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14 Bu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at the judgment than for you.

15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16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he who rejects you rejects me; but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1월 6일 월요일

Luke 10:17~24

17 The seventy-two returned with joy and said, "Lord, even the demons submit to us in your name."

18 He replied,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19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the enemy; nothing will harm you.

20 However,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s submi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21 At that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22 "All things have been committed to me by my Father.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Father is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23 Then he turned to his disciples and said privately,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what you see.

24 For I tell you that many prophets and kings wanted to see what you see but did not see it, and to hear what you hear but did not hear it."

1월 7일 화요일

Luke 10:25~37

- 25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 26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 27 He answer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 28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 29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 30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 31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 32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 33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 34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took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 35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silver coins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 36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 37 The expert i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likewise."

1월 8일 수요일

Luke 10:38~42

- 38 As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on their way, he came to a village where a woman

named Martha opened her home to him.

- 39 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listening to what he said.
- 40 But Martha was distracted by all the preparations that had to be made. She came to him and asked, "Lord, don't you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do the work by myself? Tell her to help me!"
- 41 "Martha, Martha," the Lord answered,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 42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and it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1월 9일 목요일

Luke 11:1~13

- 1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 2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 3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 4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 5 Then he said to them, "Suppose one of you has a friend, and he goes to him at midnight and says, 'Friend, lend me three loaves of bread,
- 6 because a friend of mine on a journey has come to me,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 7 "Then the one inside answers, 'Don't bother me. The door is already locked,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the bread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the man's boldness he will get up and give him as much as he needs.
- 9 "So I say to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 10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 11 "Which of you fathers, if your son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instead?

12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13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1월 10일 금요일

Luke 11:14~26

14 Jesus was driving out a demon that was mute. When the demon left, the man who had been mute spoke, and the crowd was amazed.

15 But some of them said, "By Beelzebub, the prince of demons, he is driving out demons."

16 Others tested him by asking for a sign from heaven.

17 Jesus knew their thoughts and said to them: "An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will be ruined, and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will fall.

18 If Satan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can his kingdom stand? I say this because you claim that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19 Now if I drive out demons by Beelzebub, by whom do your followers drive them out? So then, they will be your judges.

20 But if I drive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21 "When a strong man, fully armed, guards his own house, his possessions are safe.

22 But when someone stronger attacks and overpowers him, he takes away the armor in which the man trusted and divides up the spoils.

23 "He who is not with me is against me,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me, scatters.

24 "When an evil spirit comes out of a man, it goes through arid places seeking rest and does not find it. Then it says, 'I will return to the house I left.'

25 When it arrives, it finds the house swept clean and put in order.

26 Then it goes and takes seven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it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final condition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1월 11일 토요일

Luke 11:27~36

27 As Jesus was saying these things, a woman in the crowd called out, "Blessed is the mother who gave you birth and nursed you."

28 He replied, "Blessed rather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29 As the crowds increased, Jesus said, "This is a wicked generation. It asks for a miraculous sign, but none will be given it except the sign of Jonah.

30 For as Jonah was a sign to the Ninevites, so al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

31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at the judgment with the men of this generation and condemn them; for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listen to Solomon's wisdom, and now one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32 The men of Nineveh will stand up at the judgment with this generation and condemn it; for they repented at the preaching of Jonah, and now one greater than Jonah is here.

33 "No one lights a lamp and puts it in a place where it will be hidden, or under a bowl. Instead he puts it on its stand, so that those who come in may see the light.

34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 When your eyes are good, your whole body also is full of light. But when they are bad, your body also is full of darkness.

35 See to it, then, that the light within you is not darkness.

36 Therefore, if your whole body is full of light, and no part of it dark, it will be completely lighted, as when the light of a lamp shines on you."

1월 12일 주일

Luke 11:37~54

37 When Jesus had finished speaking, a Pharisee invited him to eat with him; so he went in and reclined at the table.

38 But the Pharisee, noticing that Jesus did not first wash before the meal, was surprised.

39 Then the Lord said to him, "Now then, you Pharisees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ickedness.

40 You foolish people! Did not the on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41 But give what is inside the dish to the poor, and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42 "Woe to you Pharisees, because you give God a tenth of your mint, rue and all other kinds of garden herbs, but you neglect justice and the love of God. You should have practiced the latter without leaving the former undone.

43 "Woe to you Pharisees, because you love the most important seats in the synagogues and greetings in the marketplaces.

44 "Woe to you, because you are like unmarked graves, which men walk over without knowing it."

45 One of the experts in the law answered him, "Teacher, when you say these things, you insult us also."

46 Jesus replied, "And you experts in the law, woe to you, because you load people down with burdens they can hardly carry, and you yourselves will not lift one finger to help them.

47 "Woe to you, because you build tombs for the prophets, and it was your forefathers who killed them.

48 So you testify that you approve of what your forefathers did; they killed the prophets, and you build their tombs.

49 Because of this, God in his wisdom said, 'I will send them prophets and apostles, some of whom they will kill and others they will persecute.'

50 Therefore this generation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blood of all the prophets that has been sh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51 from the blood of Abel to the blood of Zechariah, who was killed between the altar and the sanctuary. Yes, I tell you, this generation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it all.

52 "Woe to you experts in the law, because you have taken away the key to

knowledge. You yourselves have not entered, and you have hindered those who were entering."

53 When Jesus left there,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began to oppose him fiercely and to besiege him with questions,

54 waiting to catch him in something he might say.

1월 13일 월요일

Luke 12:1~12

1 Meanwhile, when a crowd of many thousands had gathered, so that they were trampling on one another, Jesus began to speak first to his disciples, saying: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2 There is nothing concealed that will not be disclos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made known.

3 What you have said in the dark will be heard in the daylight, and what you have whispered in the ear in the inner rooms will be proclaimed from the roofs.

4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5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the killing of the body, has power to throw you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6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7 Indeed,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Don'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8 "I tell you, whoever acknowledges me before men, the Son of Man will also acknowledge him before the angels of God.

9 But he who disowns me before men will be disowned before the angels of God.

10 And everyone who speaks a word against the Son of Man will be forgiven, but anyon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11 "When you are brought before synagogues, rulers and authorities, do not worry about how you will defend yourselves or what you will say,

12 for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time what you should say."

1월 14일 화요일

Luke 12:13~21

13 Someone in the crowd said to him, "Teacher, tell my brother to divide the inheritance with me."

14 Jesus replied, "Man, who appointed me a judge or an arbiter between you?"

15 Then he said to them, "Watch out! Be on your guard against all kinds of greed; a man's life does not consist in the abundance of his possessions."

16 And he told them this parable: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produced a good crop.

17 He thought to himself, 'What shall I do?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18 "Then he said, 'This is what 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19 And I'll say to myself, 'You have plenty of good things laid up for many years. Take life easy; eat, drink and be merry.'"

20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21 "This is how it will be with anyone who stores up things for himself but is not rich toward God."

1월 15일 수요일

Luke 12:22~34

22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23 Life is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clothes.

24 Consider the ravens: They do not sow or reap, they have no storeroom or barn; yet God feeds them. And how much more valuable you are than birds!

25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26 Since you cannot do this very little thing, why do you worry about the rest?

27 "Consider how the lilies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Yet I tell you,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28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how much more will h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29 And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will eat or drink; do not worry about it.

30 For the pagan world runs after all such things, and your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31 But seek his kingdom,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32 "Do not be afraid, little flock, for your Father has been pleased to give you the kingdom.

33 Sell your possessions and give to the poor. Provide purses for yourselves that will not wear out, a treasure in heaven that will not be exhausted, where no thief comes near and no moth destroys.

34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1월 16일 목요일

Luke 12:35~48

35 "Be dressed ready for service and keep your lamps burning,

36 like men waiting for their master to return from a wedding banquet, so that when he comes and knocks they can immediately open the door for him.

37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watching when he comes.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dress himself to serve, will have them recline at the table and will come and wait on them.

38 It will be good for those servants whose master finds them ready, even if he comes in the second or third watch of the night.

39 But understand this: If the owner of the house had known at what hour the thief was coming, he would not have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40 You also must be ready, because the Son of Man will come at an hour when you do not expect him."

41 Peter asked, "Lord, are you telling this parable to us, or to everyone?"

42 The Lord answered,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manager, whom the master puts in charge of his servants to give them their food allowance at the proper time?"

43 It will be good for that servant whom the master finds doing so when he returns.

44 I tell you the truth,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s.

45 But suppose the servant says to himself, 'My master is taking a long time in coming,' and he then begins to beat the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to eat and drink and get drunk.

46 The master of that servant will come on a day when he does not expect him and at an hour he is not aware of. He will cut him to pieces and assign him a place with the unbelievers.

47 "That servant who knows his master's will and does not get ready or does not do what his master wants will be beaten with many blows.

48 But the one who does not know and does things deserving punishment will be beaten with few blow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1월 17일 금요일

Luke 12:49~59

49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50 But I have a baptism to undergo, and how distressed I am until it is completed!

51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52 From now on there will be five in one family divided against each other,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53 They will be divided,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mother against daughter and daughter against mother, mother-in-law against daughter-in-law and daughter-in-law against mother-in-law."

54 He said to the crowd: "When you see a cloud rising in the west, immediately you say, 'It's going to rain,' and it does.

55 And when the south wind blows, you say, 'It's going to be hot,' and it is.

56 Hypocrites! You know how to interpret the appearance of the earth and the sky. How is it that you don't know how to interpret this present time?"

57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58 As you are going with your adversary to the magistrate, try hard to be reconciled to him on the way, or he may drag you off to the judge, and the judge turn you over to the officer, and the officer throw you into prison.

59 I tell you, you will no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1월 18일 토요일

Luke 13:1~9

1 Now there were some present at that time who told Jesus about the Galileans whose blood Pilate had mixed with their sacrifices.

2 Jesus answered, "Do you think that these Galileans were worse sinners than all the other Galileans because they suffered this way?"

3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4 Or those eighteen who died when the tower in Siloam fell on them--do you think they were more guilty than all the others living in Jerusalem?"

5 I tell you, no!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6 Then he told this parable: "A man had a fig tree, planted in his vineyard, and he went to look for fruit on it, but did not find any.

7 So he said to the man who took care of the vineyard, 'For three years now I've been coming to look for fruit on this fig tree and haven't found any. Cut it down! Why should it use up the soil?'

8 "'Sir,' the man replied,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 and I'll dig around it and fertilize it.

9 If it bears fruit next year, fine! If not, then cut it down.'"

1월 19일 주일

Luke 13:10~17

- 10 On a Sabbath Jesus was teaching in one of the synagogues,
 11 and a woman was there who had been crippled by a spirit for eighteen years. She was bent over and could not straighten up at all.
 12 When Jesus saw her, he called her forward and said to her, "Woman, you are set free from your infirmity."
 13 Then he put his hands on her, and immediately she straightened up and praised God.
 14 Indignant because Jesus had healed on the Sabbath, the synagogue ruler said to the people, "There are six days for work. So come and be healed on those days, not on the Sabbath."
 15 The Lord answered him, "You hypocrites! Doesn'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it out to give it water?
 16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eighteen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17 When he said this, all his opponents were humiliated, but the people were delighted with all the wonderful things he was doing.

1월 20일 월요일

Luke 13:18~30

- 18 Then Jesus asked,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What shall I compare it to?
 19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a man took and planted in his garden. It grew and became a tree, and the birds of the air perched in its branches."
 20 Again he asked,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to?
 21 It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 large amount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22 Then Jesus went through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as he made his way to Jerusalem.
 23 Someone asked him,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He said to them,
 24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 25 Once the owner of the house gets up and closes the door, you will stand outside knocking and pleading, 'Sir, open the door for us.' "But he will answer,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26 "Then you will say, 'We ate and drank with you,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27 "But he will reply, 'I don't know you or where you come from. Away from me, all you evildoers!'
 28 "There will be weeping there, and gnashing of teeth, when you see Abraham, Isaac and Jacob and all the prophets in the kingdom of God, but you yourselves thrown out.
 29 People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30 Indeed there are those who are last who will be first, and first who will be last."

1월 21일 화요일

Luke 13:31~35

- 31 At that time some Pharisees came to Jesus and said to him, "Leave this place and go somewhere else. Herod wants to kill you."
 32 He replied, "Go tell that fox, 'I will drive out demons and heal people today and tomorrow, and on the third day I will reach my goal.'
 33 In any case, I must keep going today and tomorrow and the next day--for surely no prophet can die outside Jerusalem!
 34 "O Jerusalem, Jerusalem, you who kill the prophets and stone those sent to you, how often I have longed to gather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chicks under her wings, but you were not willing!
 35 Look,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I tell you, you will not see me again unti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월 22일 수요일

Luke 14:1~14

- 1 One Sabbath, when Jesus went to eat in the house of a prominent Pharisee, he was being carefully watched.

- 2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 3 Jesus asked the Pharisees and experts in the law,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 4 But they remained silent. So taking hold of the man, he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 5 Then he asked them, "If one of you has a son or an ox that falls into a well on the Sabbath day, will you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 6 And they had nothing to say.
- 7 When he noticed how the guests picked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he told them this parable:
- 8 "When someone invites you to a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a person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 9 If so, the host who invited both of you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this man your seat.' Then, humiliated, you will have to take the least important place.
- 10 But when you are invited, take the lowest place, so that when your host comes, he will say to you, 'Friend, move up to a better place.' Then you will be honored in the presence of all your fellow guests.
- 11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 12 Then Jesus said to his host, "When you give a luncheon or dinner, do not invite your friends, your brothers or relatives, or your rich neighbors; if you do, they may invite you back and so you will be repaid.
- 13 But when you give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 14 and you will be blessed. Although they cannot repay you,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1월 23일 목요일

Luke 14:15~24

- 15 When one of those at the table with him heard this, he said to Jesus, "Blessed is the man who will eat at the feast in the kingdom of God."
- 16 Jesus replied: "A certain man was preparing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any guests.

- 17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
- 18 "But they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s. The first said, 'I have just bought a field, and I must go and see it. Please excuse me.'
- 19 "Another said, 'I have just bought five yoke of oxen, and I'm on my way to try them out. Please excuse me.'
- 20 "Still another said, 'I just got married, so I can't come.'
- 21 "The servant came back and reported this to his master. Then the owner of the house became angry and ordered his servant, 'Go out quickly into the streets and alleys of the town and bring in the poor, the crippled, the blind and the lame.'
- 22 " 'Sir,' the servant said, 'what you ordered has been done, but there is still room.'
- 23 "Then the master told his servant, 'Go out to the roads and country lanes and make them come in, so that my house will be full.'
- 24 I tell you, not one of those men who were invited will get a taste of my banquet.'"

1월 24일 금요일

Luke 14:25~35

- 25 Large crowds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 26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his father and mother, his wife and children, his brothers and sisters--yes, even his own life--he cannot be my disciple.
- 27 And anyone who does not carry his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 28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he has enough money to complete it?
- 29 For if he lays the foundation and is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him,
- 30 saying, 'This fellow began to build and was not able to finish.'
- 31 "Or suppose a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ill he not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ten thousand men to oppose the one

- coming against him with twenty thousand?
- 32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of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 33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 34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 35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f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월 25일 토요일

Luke 15:1~10

- 1 Now the tax collectors and "sinners" were all gathering around to hear him.
- 2 But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muttered, "This man welcom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 3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 4 "Suppose one of you has a hundred sheep and loses one of them. Does he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 5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s it on his shoulders
- 6 and goes home. Then he calls his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sheep.'
- 7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rejoicing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do not need to repent.
- 8 "Or suppose a woman has ten silver coins and loses one. Does she not light a lamp,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 9 And when she finds it, she calls her friends and neighbors together and says, 'Rejoice with me; I have found my lost coin.'
- 10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rejoicing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1월 26일 주일

Luke 15:11~32

- 11 Jesus continue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 12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 13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and there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 14 After he had spent everything, there was a severe famine in that whole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 15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a citizen of that country, who sent him to his fields to feed pigs.
- 16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pods that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 17 "When he came to his senses,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men have food to spare, and here I am starving to death!'
- 18 I will set out and go back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 19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men.'
- 20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 21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 23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 24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 25 "Meanwhile, the older son was in the field. When he came near the house, he heard music and dancing.
- 26 So he called one of the servants and asked him what was going on.
- 27 'Your brother has come,' he replied, 'and your father has killed the fattened calf because he has him back safe and sound.'

- 28 "The older brother became angry and refused to go in. So his father went out and pleaded with him.
- 29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Yet you never gave me even a young goat so I could celebrate with my friends.
- 30 But when this son of yours who has squandered your property with prostitutes comes home, you kill the fattened calf for him!'
- 31 "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 32 But we had to celebrate and be glad, because this brother of yours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

1월 27일 월요일

Luke 16:1~13

- 1 Jesus told his disciples: "There was a rich man whose manager was accused of wasting his possessions.
- 2 So he called him in and asked him, 'What is this I hear about you?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because you cannot be manager any longer.'
- 3 "The manager said to himself, 'What shall I do now? My master is taking away my job. I'm not strong enough to dig, and I'm ashamed to beg--
- 4 I know what I'll do so that, when I lose my job here, people will welcome me into their houses.'
- 5 "So he called in each one of his master's debtors. He asked the first, 'How much do you owe my master?'
- 6 " 'Eight hundred gallons of olive oil,' he replied. "The manager told him, 'Take your bill, sit down quickly, and make it four hundred.'
- 7 "Then he asked the second, 'And how much do you owe?' " 'A thousand bushels of wheat,' he replied. "He told him, 'Take your bill and make it eight hundred.'
- 8 "The master commended the dishonest manager because he had acted shrewdly. For the people of this world are more shrewd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than

are the people of the light.

- 9 I tell you, 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s.
- 10 "Whoever can be trusted with very little can also be trusted with much, and whoever is dishonest with very little will also be dishonest with much.
- 11 So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in handling worldly wealth, who will trust you with true riches?
- 12 And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with someone else's property, who will give you property of your own?
- 13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1월 28일 화요일

Luke 16:14~18

- 14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heard all this and were sneering at Jesus.
- 15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
- 16 "The Law and the Prophets were proclaimed until John. Since that tim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and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 17 It is easier for heaven and earth to disappear than for the least stroke of a pen to drop out of the Law.
- 18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woman commits adultery, and the man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commits adultery.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4

충현의 만나 2017년 2월

Copyright© 2017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편집인 | 권명옥, 집필진 | 노찬국 최표구 이경민

발행처 | 충현교회 교육훈련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40(역삼동) 전화 552-8200)[비매품]